

영미철학의 수용과 그 평가

김효명*

I. 서 론

“서구 철학사상의 유입과 그 평가”라는 큰 주제의 한 부분으로 이루 어지는 본 연구는 1960년에서부터 시작하여 1979년에 이르기까지 소위 “영미철학”이라 불리는 서구 사상의 수용양상은 어떠했는지 고찰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960년대와 70년대 하면 쉽게 떠오르는 것이 소위 ‘3공’이다. 이 시기가 3공이 시작되고 마무리되었던 시기와 대략 일치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가 고찰할 대상을 이 시기로 정한 것은 아니다. 시대적 현실과 그 시대에 주로 논의되는 사상 간에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임은 틀림없겠지만 그러한 관계를 의식해서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다. 사상과 시대간의 관계를 밝히는 일은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선불리 시작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문제의 시대가 가까울 수록 더욱 그렇다. 우리가 지금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상일반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철학이고, 또 철학 중에서도 그 때까지만 해도 그 영향력이 극히 미약했던 영미철학이기 때문에 이 특정의 철학과 우리 역사에서의 특정의 시대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더 큰 어려움을 가질 것이고 어쩌면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 고찰이 의미를 가지려면 서양철학 일반이 해방 이후 전개된 우리의 현실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서양사상 일반은 또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등에 대한 고찰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 서울대 철학과 교수

할 것이다.

여하튼 영미철학의 수용에 대한 고찰을 60년대와 70년대로 잡았음은 이 땅에서의 영미철학 연구가 특별히 60년대와 70년대의 시대상황과 어떤 유별난 관계를 가져서가 아니라 단순히 연구의 편의상 그렇게 잘라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영미철학의 경우 그 수용에 대한 고찰을 1960년에서부터 1979년까지 한정시키는 것이 왜 편의상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것 때문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만한 것은 별로 찾아질 것 같지 않다. 다만 왜 1960년부터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선 그 이전에는 다른 철학, 이를테면 독일철학 같은 것과는 다르게 영미철학은 거의 수용이 안되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능할듯 하고, 또 왜 1979년에서 끝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선 1980년대에 들어와선 서양철학을 하는 이른바 ‘제 2 세대’들의 학문적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써 1970년대와 비교하여 영미철학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활발해졌기 때문에 1980년 이후 지금까지는 별도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해 볼 수 있음직 하다.

앞에서 ‘편의상’이라고 하였지만 영미철학 수용의 경우 1960년부터 고찰해 보는 것은 편의상 외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1960년이라면 해방이 된지 불과 15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이다. 그 15년간은 주로 일제하에서 하던 철학이 아직도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때였고 영미철학은 ‘일제하에서 하던 철학’의 범주에는 들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딱 1960년이라고 못박을 수는 없겠지만 대략 그 무렵 까진 아직도 이 땅에선 ‘영미철학’이라는 것이 별로 소개되지도 않고 언급되는 경우조차도 극히 드물었을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나온 어느 통계자료¹⁾에 의하면 해방후 1959년까지 각 대학에서 배출한 석·박사 논문의 경우 칸트에 관한 논문이 7편, 하이데거에 관한 논문이 3편, 헤겔에 관한 논문이 1편인데 반하여 로크, 버클리, 흄 등 영국의 고전 철학자는 물론 러셀, 무어, 비트겐슈타인 등의 현대 철학자에 대

1) 「서양철학의 한국에 있어서의 수용과 한계분석」, 『철학·종교사상의 제문제(V)』,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89-9, 1989.

한 논문조차도 전무(全無)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그리고 동일한 시기에 나온 일반 논문의 경우에는 칸트, 헤겔, 하이데거에 관한 논문이 각각 14편, 15편, 9편인데 반하여 러셀과 브라이언에 관한 논문이 각각 2편씩이고 흡에 관한 논문은 1편, 그리고 비트겐슈타인과 무어, 홉스와 로크에 관한 논문은 여전히 한편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석·박사 논문이나 일반 논문이 모두 그 당시 대학의 철학강의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수행되었으며 학자들의 관심이나 연구 경향이 어떠하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볼 때, 독일철학에 대한 연구가 당시의 학자들이나 학생들의 문자 그대로 ‘압도적인’ 관심사였던 반면 영미철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극히 미미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저술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60년 이전에 나온 철학 관계 저술이라 해 보아야 주로 개론서가 대부분이고 일반교양으로 나온 저술이 몇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해방 전에 나온 대표적인 개론서로서는 한치진의 『철학개론』과 안호상의 『철학강론』을 들 수 있을 것이고, 해방 이후에 나온 개론서로서는 박종홍의 『철학개론 강의』, 이종우의 『철학개론』 등을 들 수 있을 것인데 이 개론서들은 하나 같이 모두 독일철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그 공통적인 특징으로 삼고 있다. 이들 책은 대개는 형이상학과 인식론을 중심으로 엮어져 있는데 형이상학의 내용은 주로 하이데거를 위시한 실존철학이나 헤겔을 위시한 독일 관념론과 마르크스의 유물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식론의 내용은 합리론 경험론에 대한 극히 간단한 언급을 거쳐 주로 칸트의 이론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방 전후, 또는 해방 이후 50년대까지 서양철학의 이름으로 선보인 논문이나 저술들의 특징이 이러한 데에는 비교적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시기는 일제로부터 독립된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로서 문화 일반이 아직은 일제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때이다. 그 중에서도 학문, 또 학문 중에서도 특히 철학은 거의 절대적으로 일제의 영향 하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당시 일제의 학문, 일제의 철학이라는 것

은 정치 군사적 동맹관계에 있었던 독일의 학문, 독일의 철학을 흉내 내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하의 우리의 학자들이란 대개는 이러한 학문적 성향을 가졌던 일제의 학문을 일제의 교육제도 아래 일제의 언어를 통하여 교육받았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했던 학문도 결국은 독일 위주의 학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해방 이후에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계속되었으리라 짐작된다.

1960년은 해방된지 15년이 지난 때이다. 이후부터 한 이십 년간 우리의 철학연구 풍토는 어떠하였는지를 검토해 보는 일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즉 60년, 70년대까지도 거의 독일철학만 일방적으로 연구하던 풍토가 계속되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철학사조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는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또 다른 철학사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반성적 검토는 서양철학연구의 현재를 점검해 보는 일에 의미 있는 선결과제라고 생각된다. 이 과제가 이 글의 목표인 것은 물론 아니다.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 글의 목표는 그 과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을 영미철학의 연구동향에 국한된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될 것이다. 영미 철학 내에서의 철학자별 분석, 사조(思潮)별 분석, 그리고 주제(主題)별 분석이 그것이다. 분석대상은 저술과 논문으로 삼았으며, 논문에는 학술잡지에 실렸던 ‘일반논문’ 뿐만 아니라 석사·박사 학위논문들도 포함시켰다.

II. 철학자별 분석

해방 이후 15년간 영미철학자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독일철학자들에 대한 연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였다는 점은 60년대, 70년대에 들어와서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그 조사에 다시 의존하여 말한다면 특히 60년대에는 영미철학 또는 영미철학자에 대하여 보인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극히

한정적이고 얇은 것이었으며, 그것에 대한 연구도 따라서 극히 미미하였다. 그 조사에 의하면 일반논문의 경우 60년대에 나온 칸트에 관한 논문이 모두 34편, 헤겔과 하이데거에 관한 논문이 각각 38편과 30편이었는 데 반하여, 러셀에 관한 논문은 단 2편,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논문은 5편, 그리고 흄에 관한 논문은 3편 정도가 거의 전부이다. 독일 철학의 경우 칸트, 헤겔, 하이데거라는 소위 ‘거물’들 외에도 영미철학의 ‘거물’들보다 더 자주 연구된 철학자들은 많다. 이를 다 합친다면 ‘독일철학’에 관한 연구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논문 수는 총 130편 정도가 된다. 이에 비하여 ‘영미철학’이라 부를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 연구논문 수는 모두 합쳐 보아야 12편에 지나지 않는다. 꼭 10대 1의 비율이다. 이러한 상황은 70년대에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70년대에 나온 연구논문들 중에서 독일철학에 관한 논문들은 320편 정도나 되는데 영미철학에 관한 논문들은 40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약 10년 간격을 두고 독일철학 논문 수는 한 200편 가량 늘어났는데 비하여 영미철학 논문 수는 2-30편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

이제 영미 철학적 관심이 주로 어떤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다음은 영미철학자별 연구 빈도 수를 60년대와 70년대를 나누어 조사해 본 결과이다.

<표 1>		1960-1969
비트겐슈타인 (L. Wittgenstein)	3편
러셀 (B. Russell)	2편
화이트헤드(A. Whitehead)	2편
듀이(J. Dewey)	2편
페스(C. S. Peirce)	1편
제임스(W. James)	1편
헤어(R. M. Hare)	1편
1970-1979		
비트겐슈타인	9편
듀이	9편

무어(G. E. Moore)	6편
러셀	3편
제임스	3편
포퍼(K. Popper)	3편
화이트헤드	2편
카르납(R. Carnap)	2편
모리스(C. W. Morris)	2편
콰인(W.V. Quine), 에이어(A. J. Ayer), 프레게(G. Frege), 오스틴(J. L. Austin), 쿤(T. Kuhn), 퍼스, 롤스(J. Rawls)	
.....	각1편

<표 1>에서 우선 특기할만한 점은 60년대 70년대를 통틀어 영미철학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경험론자에 대한 연구논문이 단 한 편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영국의 고전경험론이 해방전후는 물론이고 70년대에 이르기까지도 우리 철학자들의 관심영역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점을 말해 준다. 60년대와 70년대에 논문을 쓴 학자들은 대개 5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냈을 터이고, 주로 독일철학으로 진행되었던 50년대의 철학강의에서 영국경험론은 아예 처음부터 빠져 있었고 강의목록에 조차 들지도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왜 그때까지도 영국경험론에 대한 논문이 한 편도 나타나지 않았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표 1>에서 60년대와 70년대를 구분하여 비교해 본다면 우선 두드러진 차이점은 60년대에는 서양철학자에 대한 관심이 몇몇 사람을 중심으로 극히 제한되었던 반면에 70년대에 와서는 새로운 철학자의 이름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서양철학자에 대한 관심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다양해졌다라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프레게와 콴의 그리고 쿤의 등장은 주목할만하다. 왜냐하면 프레게의 철학은 비트겐슈타인과 러셀의 철학과 더불어 현대 영미철학의 선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콴은 이들 철학의 창조적 계승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며 이들 철학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현대 영미철학에 대한 관

심과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프레게나 콰인에 비하여 비트겐슈타인은 비교적 일찍부터 소개되었다. 일찍이라 해보아야 「*Tractatus*」의 중심사상(이 명현)이 발표되었던 1966년인데 그래도 콰인이나 프레게에 관한 논문이 나온 시기에 비하면 빠른 편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사실은 위의 논문이 발표된 시기보다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된 것으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 1966년 이전에 이미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었고, 필자의 기억으로 말한다면 적어도 필자의 학부시절과 대학원시절만 해도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강의와 세미나가 한번씩 있었다. 특히 학부 때(1965년경) 미국 Minnesota 대학에서 수학하고 돌아온 이한조 교수로부터 들었던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강의는 아마도 비트겐슈타인 철학에 대한 한국 최초의 체계적인 소개였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한조 교수는 1950년대부터 미군 도서관에서 우연히 *Tractatus*를 접하고 이를 연구하기 위하여 미국유학을 하신 분으로서 어찌면 비트겐슈타인 철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국내에 소개한 한국 최초의 철학자가 아닌가 한다.

한국의 비트겐슈타인 연구하면 또 언급되어야 할 사람이 있다. 그는 바로 앞에서 말한 논문 「*Tractatus*」의 중심사상(『철학연구』)의 저자 이명현 교수이다. 1968년에 나온 그의 석사논문('Wittgenstein에 있어서 언어의 의미의 문제 - 후기철학을 중심으로')도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것이었고, 1974년에 미국 Brown대에서 받은 박사 논문("The later Wittgenstein's Reflection on Meaning and Forms of Life")도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것이었다. 이 교수는 이와 같이 학사, 석사, 박사 논문을 일이관지 모두 비트겐슈타인 연구에만 바침으로써 70년대 한국에서 갑자기 활성화된 비트겐슈타인과 분석철학에 대한 연구의 한 시발점, 한 디딤돌을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1970년에 발표된 「Wittgenstein과 본질철학의 종언」(『철학』, 김여수), 1974년에 발표된 「Wittgenstein의 <Philosophical Investigation>연구」(『철학연구』, 송현주), 1975년에 발표된 「<*Tractatus*

에 있어서 ‘속성’의 존재성격에 관한 소고」(『철학논구』, 이좌용), 1976년에 발표된 「대상과 Tractatus」(『철학논구』, 이영철), 1978년에 발표된 「비트겐슈타인의 <트락타투스>에 있어서의 도시와 밀립」(『연세논총』, 박영식), 그리고 역시 같은 해에 발표된 「비트겐슈타인의 <논고>에 있어서의 도시와 밀립」(『연세논총』, 박영식) 등이 주목할만한 비트겐슈타인 연구논문들이다.

이와 같이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했던 데에 비하여 비트겐슈타인과 더불어, 아니 그보다 더 먼저 분석철학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는 프레게와 러셀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하였다는 점 또한 이 시대 영미철학 연구경향의 한 특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러셀은 둘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화사상, 교육사상, 행복론, 권력론 등과 같은 주로 ‘대중철학’을 중심으로 소개되었고 이십세기 분석철학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수리철학이나 논리적 원자론의 철학은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연구논문으로는 1963년에 나온 「B. Russell의 Neo-Realism」(『박종홍박사 환력기념논문집』, 김병규)과 1970년에 발표된 이초식 교수의 「B. Russell의 수리철학」(『철학』), 그리고 같은 해 영남대 논문집에 발표되었던 「Bertrand Russell의 철학 – 그의 존재론적 견해의 전개를 중심으로」 뿐이었다. 둘이의 철학에 대한 논문들은 70년대에 들어와서 비교적 많아진 편인데 이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대부분 교육이나 윤리문제를 중심으로 쓰여진 것들이다. 그리고 70년대에는 무어에 대한 논문도 6편이나 되는데 이것 역시 거의 대부분 그의 윤리학에 관한 논문들이었다.

이에 반하여 현대 영미분석철학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프레게의 철학에 관하여서는 연구는커녕 소개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 프레게철학에 대한 연구논문으로는 1975년에 발표된 「프레게의 개념론 분석」(『부산 수산대 논문집』, 김위성)만이 눈에 띠는데 그나마 나온 이 유일한 논문이 지방이든 중앙이든 『철학』이나 『철학연구』 같은 학회지에 발표된 것이 아니라 지방대학의 논문집에 다른 분야의 논문들과 함께 실려진 것이기에 철학하는 사람들의 눈에 띠기도

어려웠고 따라서 학계에 끼친 영향도 거의 없었으리라 짐작된다. 왜냐하면 그 후 80년대에 와서도 프레게철학은 여전히 한국의 철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것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80년대에 와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이 땅의 철학인들도 프레게가 누구인지 그의 철학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정도는 알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필자가 미국유학을 떠났던 해가 1976년이었는데 미국의 모든 주요대학 철학과에서 프레게의 철학이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그것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필자로서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난다. 그 때 상기한 논문 「프레게의 개념론 분석」이라도 미리 접했더라면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듈다.

콰인에 대한 논문도 단 한편(이명현, 「Quine의 원초적 번역의 불확정성론: 그 비판적 검토」, 『철학연구』, 1974) 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중앙의 학술지에 발표되었다는 사실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요인이 있어서 그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 경우는 프레게의 경우와는 다르게 그 후의 한국의 분석철학 연구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 듯 하고, 80년대에 콰인철학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아졌다는 사실과도 연결될 수 있을 듯하다. 우리의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 시기이긴 하지만 80년대에 들어오면 소위 '분석철학'에 대한 연구가 서양철학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인식되면서 한국 철학계의 중요한 한 주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의 한국의 분석철학 연구는 콰인과 콰인 이후의 주요 철학자들 - 이를테면 퍼트남, 크립키, 데이빗슨, 로티 등 - 은 비중있게 다루었어면서도 콰인 이전의 철학자들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비트겐슈타인 외에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를 띠고 있다. 특히 프레게철학에 대한 연구가 6, 70년대는 물론 80년대에 이르기까지도 빈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비단 분석철학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철학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편식'현상의 전형적인 한 사례가 아닌가 한다.

III. 사조별 분석

영미철학의 사조라 해보아야 몇 가지밖에 안된다. 물론 무엇을 사조로 볼 것이냐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사조이다 아니다를 가려줄 수 있는 엄밀한 기준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사조이고 저것은 사조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대표적인 영미철학의 사조인지에 대해선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이 합의에 바탕하여 최소한의 사조들을 분류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우선 ‘영국경험론’(English empiricism)이라 불리는 사조가 17, 18 세기의 영국철학을 대변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0 세기의 영미철학을 통칭하여 좀 모호한대로 ‘분석철학’이라 부르는 데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석철학’(analytic philosophy)이라는 말이 앞서 지적한대로 분석, 더 정확히 말하여 언어나 개념분석을 지적 작업의 전부로 여기는 철학 전체를 지칭하는 매우 일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무엇이 그 용어 속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매우 모호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말의 포함적인 내용 속에서도 언어철학, 과학철학, 수리철학 등의 다양한 갈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언어철학, 과학철학 등을 하나의 사조로 보기는 어렵다. 언어철학, 과학철학, 수리철학 등은 각각 현대 영미철학의 한 분야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하나의 사조로서의 분석철학의 갈래에는 오히려 논리적 원자론(logical atomism), 논리적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 일상언어학파(ordinary language school) 등이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또 하나 분석철학의 테두리 내에 들지는 않으면서도 20세기 미국철학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실용주의(pragmatism)도 하나의 사조로 간주할 수 있겠다.

영미철학의 사조를 대충 위와 같이 분류해 보았을 때 각 사조별 연구업적은 다음의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표 2>

사조	단행본	학위논문	일반논문	총계
영국 경험론	0	0	0	0
논리적 원자론	0	3	10	13
논리적 실증주의	0	0	7	7
일상언어학파	0	1	6	7
실용주의	5	7	18	30

<표 2>에서 우선 눈에 띠는 사실은 영국 경험론에 대한 논문이 학위논문이건 일반논문이건 단 한 편도 없다는 점이다. 영국 경험론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결과인지는 알 도리가 없다. 해방 전, 그리고 해방후 얼마간 영국철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주된 이유에 관하여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즉 독일철학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던 일제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이유 하나 만으로는 70년대 말까지, 그러니까 해방이 된지 25년이 지나기까지도 여전히 영국철학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아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 일단의 이유를 더듬어 보는 일은 뒤로 미루고 우선은 이것이 60년, 70년대 외국 철학사조에 대한 우리의 연구자세나 경향이 얼마나 치우쳐져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한 전형적인 사례가 된다는 점만 지적해 두기로 하겠다.

이와 함께 또 하나 특기할만한 점은 절대 수에 있어서는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미철학 내의 다른 사조들에 비해선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용주의에 대한 연구이다. 왜 이 시기에 실용주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그토록 많았는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설명이 쉽지 않겠지만 쉽지 않은 대로 한번쯤은 음미해 볼 일이라 여겨진다. 우선 실용주의에 관한 어떤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다음의 표를 보면서 논해 보기로 하자.

<표 3>

필자	제목	분류	년도
신우철	실용주의 철학에 관한 일 고찰	학위(동국대석사)	1960
원갑희	실용주의의 고찰-제임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일반(철학탐구 중앙대 4)	1965
곽철규	J. Dewey의 사상에서 고찰한 행위와 선에 대한 연구	학위(서울대석사)	1965
박철주	Peirce의 Realism	일반(부산대논문집)	1965
김태길	철학의 역사성-Dewey의 견해를 중심으로	일반(한국사회과학 논집 4)	1966
최정웅	J. Dewey의 경험에 관한 고찰	학위(부산대석사)	1969
박철주	Pragmatism과 존재론	일반(부산대논문집)	1970
변홍규	J. Dewey의 경험론에 관한 연구	학위(전북대석사)	1970
이성재	J. Dewey에 있어서의 인간성의 파악	학위(건국대석사)	1970
박교영	The Pragmatic Theory of Truth	일반(철학, 한국철학회)	1971
박철주	Dewey의 자연과 경험의 개념에 대하여	일반(철학연구, 한국철학 연구회)	1971
박교영	W. James' View on Percept and Concept	일반(철학, 한국철학회)	1972
유기상	인식의 기저와 확실성에 관한 연구	일반(중앙대논문집)	1972
최정웅	J. Dewey의 경험사상과 고전경험론과의 비교연구	일반(부산여대논문집)	1972
김준섭	듀이의 경험과 지성과 자유의 철학	일반(철학논구, 서울대)	1973
손정규	J. Dewey의 실용주의에 대한 소고	일반(목포교대논문집)	1973
박철주	Pragmatism에 있어서의 행위의 의미	일반(부산대논문집)	1973
권선영	J. Dewey 철학에 있어서의 경험분석	학위(부산대석사)	1974
박동환	Dewey and Hume on the Role of Reason in Value Judgment	일반(홍대논총)	1976
서해길	Pragmatism의 역사적 배경과 사상	일반(전남대 미국학)	1977
이수태	존 듀이의 경험지속의 원리에 관한 연구	학위(고려대석사)	1977
김수철	Some Philosophical Problems in C.S.Pierce	일반(철학연구, 한국철학 연구회)	1978
김희식	프래그마티즘의 사상적 고찰	일반(공주교대논문집)	1979
구병림	W. James의 진리관	일반(천옥환박사화답기념논문집)	1979
박철주	C. S. Peirce의 사상과 그 역사적 의의	일반(부산대논문집)	1979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실용주의에 대한 연구는 일단 외면적으로는 상당히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진 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외면적 넓이에 관해서 한가지 지적할만한 점은 같은 실용주의자들 중에서도 유독 듀이의 실용주의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점이다. 제임스의 철학과 퍼스의 철학에 대한 논문이 각각 2편과 3편에 불과한 반면 듀이의 철학에 관한 논문은 12편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철학적인 깊이와 그 영향력에 있어서 실용주의 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퍼스의 철학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이에 비하여 듀이의 철학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했던 편인데 이는 아마도 어떤 연유에서인지 듀이의 교육철학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된 한국의 교육학자들이 일찍부터 이를 수입하고 소개한 탓이 아닌가 한다.

또 한가지 지적할만한 점은 <표 3>에서 보듯이 대개의 논문이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발표된 것들이고 따라서 한국의 실용주의 연구는 주로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것도 대개는 필자가 속해 있는 지방의 대학에서 펴낸 논문집에 실린 것들로서 독자도 극히 제한되었을 것이라 짐작되고 따라서 그 영향력도 극히 미미했으리라 짐작된다. 한국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문화적 차이, 그리고 중앙학회지와 지방대학의 논문집간의 신뢰도 차이가 어떤 것이라 꼬집어 말하긴 힘들어도 여하튼 어떤 면에서이건 의미가 있다면 한국에서 실용주의가 주로 지방을 중심으로 비전문지인 일반논문집에서 논의되었다는 사실 역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 논리적 원자론과 논리적 실증주의를 함께 보기로 하자. 이 양 사조에 관하여 발표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표 4> 논리적 원자론

필자	제목	분류	년도
김병규	B. Russell의 Neo-Realism	일반(박종홍박사 환역기념논문집)	1963
곽노진	럿셀의 기술의 이론	학위(서울대석사)	1965
이명현	<Tractatus>의 중심세계	일반(철학연구, 철학연구회)	1966

최명관	Russell's Position in the Problem of Negation	일반(승실대논문집)	1967
허재윤	The Development of the Logical Atomism	일반(철학연구, 한국 철학 연구회)	1968
문정복	B. Russell의 철학-그의 존재론적 견해의 전개를 중심으로	일반(영남대논문집)	1968
김여수	Wittgenstein과 본질철학의 종언	일반(철학연구, 철학 연구회)	1970
이초식	B. Russell의 수리철학	일반(철학, 한국철학회)	1970
문정복	B. Russell의 Logical Atomism에 대한 연구	학위(영남대박사)	1975
이좌용	<Tractatus>에 있어서 '속성'의 존재성격에 관한 소고	일반(철학논구, 서울대)	1975
이영철	대상과 Tractatus	일반(철학논구, 서울대)	1976
조인래	Frege와 초기 Wittgenstein에 있어서의 명제와 함수	학위(서울대석사)	1977
박영식	비트겐슈타인의 <트락타투스>에 있어서의 도시와 밀립	일반(연세논총)	1978

<표 5>

필자	제목	분류	년도
이정호	논리적 실증주의의 반형이상학 문제	일반(합동논문집)	1964
박영식	검증원리의 문제	일반(인문과학, 연세대)	1968
허재윤	The Historical Survey of the Logical Positivism	일반(철학연구, 한국철학 연구회)	1968
박영식	논리적 경험주의와 가명제	일반(인문과학, 연세대)	1972
신현규	검증원리-의미의 검증이론을 중심으로	일반(철학논구, 서울대)	1972
김영철	분석철학의 제반과제-Carnap을 중심으로	일반(전북대논문집)	1973
이초식	루돌프 카르납의 과학적 휴머니즘과 그 비판에 관한 고찰	일반(현상과 인식)	1978

<표 4>와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논리적 원자론에 대한 논문의 수가 논리적 실증주의에 관한 논문의 수보다 훨씬 많다. 이러한 결과는 논리적 실증주의가 그 후의 서양철학계에 끼친 영향이 논리적 원자론의 그것 보다 더 컸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주로 러셀의 “The Philosophy of Logical Atomism”이라는 논문과 비트겐슈타인의 *Tractatus*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논리적 원자론의 철학은 그 이론의 과격성 탓이었는지 비교적 일찍 퇴조하고 말았다. 이에 비하여 논리적 실증주의는 이 역시 겸종이론이나 통일과학 이론 같은 꽤 과격한 내용을 가졌으면서도 전반적으로는 그 내용이 비교적 다양하였고 또 이 학문운동에 참여하였던 학자들도 다양하였기에 논리적 원자론보다는 그 생명이 더 오래 지속되었다. 이에는 논리적 실증주의에 참여하였던 많은 학자들이 2차 세계대전을 피하여 미국으로 망명하였다는 역사적 사실도 빼 수 없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과학철학’이 바로 이들의 활동에 의하여 비롯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논리적 실증주의보다는 논리적 원자론에 더 큰 관심을 보여 왔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되질 않는 부분이다. 어떤 사조이건 어차피 모든 것이 외래사조이고 보면 그 외래사조를 받아들이는 데 무슨 질서가 있었고 무슨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겠느냐마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여 왜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사상에는 관심이 많았으나 카르납의 과학철학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단적으로 말하여 비트겐슈타인의 초기사상은 ‘형이상학적’인데 반하여 카르납의 철학은 ‘과학적’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가 생각한 가능한 한 설명이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에게 형이상학 사유의 전통은 있었지만 과학과 과학에 대한 철학적 반성의 전통은 없었기 때문이리라. 우리에게 과학일반에 대한 철학적 반성의 필요가 없었음은 어떻게 보면 극히 당연한 일이었고 따라서 과학철학 같은 데에 관심을 쏟을 기반과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80년, 90년대에 들어와서도 마찬 가지이다. 이는 아직도 과학철학을 본격적으로 전공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두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이 되고도 남는다. 아마도 이제부터는 과학철학회도 본격적으로 출발을 한 마당에 사정이 좀 달라지리라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소위 ‘일상언어학파’에 대한 연구는 어떠했는지 일별해 보기로 하자.

<표 6>

필자	제목	분류	년도
이명현	Wittgenstein에 있어서 언어의 의미-후기철학을 중심으로	학위(서울대석사)	1968
이명현	후기 Wittgenstein에 있어서 언어의 의미	일반(공사논문집)	1972
송현주	Wittgenstein의 <Philosophical Investigation>연구	일반(철학연구, 철학연구회)	1974
남경희	Austin의 언어행위론	일반(철학논구, 서울대)	1975
이명현	An Examination of the Notion of 'Use' in the later Wittgenstein	일반(최재희박사학위논문집)	1975
박영식	비트겐슈타인의 <논고>에 있어서의 도시와 밀림	일반(연세논총)	1978
정대현	일상언어분석	일반(철학연구, 철학 연구회)	1978

위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6, 70년대 일상언어학파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거의 다 비트겐슈타인의 후기사상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연구자들도 거의 전부 비트겐슈타인을 전공한 학자들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의 일상언어학파에 대한 연구는 일상언어학파 자체에 대한 관심 보다는 비트겐슈타인철학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후기사상 자체가 바로 일상언어학파를 탄생 시킨 원동자이긴 하였지만 일상언어학파에는 비트겐슈타인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였고, 따라서 일상언어학파의 사상을 제대로 연구하자면 이들의 철학에 대한 연구도 뒤따랐어야 할 터인데 <표 6>에서 보듯이 그렇지 못하였다. 다만 「일상언어분석」이라는 논문을 쓴 정대현 교수만이 예외인듯 하다. 예외라는 뜻은 일상언어학파를 비트겐슈타인의 후기철학에만 국한하여 연구하지 않고 그 후로 전개된 일상언어 철학을 전반적으로 연구하였다는 뜻이다. 물론 정대현 교수도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요 관심은 비트

겐슈타인의 철학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아가 일상언어의 철학적 분석 자체에까지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일상언어의 분석적 기술을 한국어를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줄곧 관심과 연구를 해 왔다. 이의 결과로 1985년에 그는 『한국어와 철학적 분석』이라는 저술을 내 놓았고 그 후로도 계속 한국어, 예컨대 ‘맞음’과 같은 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왔다. 서양의 일상언어학파가 한국에 소개되어 정대현 교수의 한국어 분석에서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IV. 주제별 분석

이제 마지막으로 주제별 분석의 차례이다. 주제별 분석의 초점은 당연히 이 기간 동안 어떤 주제들이 주로 논의되었는가가 되겠다. 철학적 주제만큼 다양한 것도 별로 없을 것이다. ‘철학적’이라는 말 자체부터 매우 모호한 만큼 ‘철학적 주제’라는 용어 속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지도 매우 모호할 수밖에 없다. 어떤 주제도 보기에 따라선 철학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철학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매우 제한적으로 이해한다면 대개 어떤 것들이 철학적인 주제에 속하는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철학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한한다 할 때 ‘제한한다’는 말도 역시 모호한데 모호한대로 대충 전통적으로 철학의 본령이라고 여겨져 왔던 분야들, 즉 인식론, 형이상학, 논리학, 윤리학에 속하는 문제들에 국한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듯하다. 또는 전문 학술지에서 자주 언급되고 논의되는 문제들에 국한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문제는 어떤 것들이 전통적으로 철학적인 주제가 되어 왔느냐가 아니라 바로 이 시기, 즉 6, 70년대에 한국에서는 영미철학의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졌는가가 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발표되었던 논문들을 기반으로 하여 뽑아 본 주제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대충 다음과 같다.

<표 7>

주제	단행본	학위논문	일반논문	총계
인파	0	5	1	6
실재	1	3	7	11
진리, 의미, 언어	2	9	20	31
심신	0	2	6	8
학률과 귀납	0	3	8	11
설명	0	2	1	3
지식과 경험	1	6	11	18
역사와 문화	1	3	4	8
교육	0	8	2	10
논리와 수리	14	1	8	23

위의 표가 보여주고 있듯이 중요한 문제는 거의 다 다루어졌다. 얼마나 깊이 있게 또 얼마나 정확하게 다루어졌는가는 별 문제로 하더라도 다룬 문제의 넓이만큼은 작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 넓이의 크기도 외면상의 크기에 지나지 않는다. 안을 들여다보면 어떤 주제도 그렇게 폭넓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다루어진 문제가 ‘진리, 의미, 언어’의 문제로 나타나 있는데 이에 대한 일반논문 20편을 그 제목만으로 분석해 본다면 역시 거의 대부분이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관한 것들이었다. 비트겐슈타인이후에 전개된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연구는 「콰인의 원초적 번역의 불확정성론- 그 비판적 검토」라는 이명현 교수의 논문을 제외하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콰인, 퍼트남, 데이빗슨, 크립키 등의 이론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80년대에 들어 와서야 시작되었다. 따라서 ‘진리, 의미, 언어’라는 주제에 일반논문만 쳐도 20편이나 되므로 이 문제가 꽤 다양하게 다루어졌다는 인상을 받기 쉬우나 사실은 그 20편이 거의 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일 개인의 이론에 대한 것으로 극히 편중되어 있고, 또 그것마저 대부분 한 두 명의 연구자에 의하여 쓰여진 것

들로서 필자도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한 마디로 ‘진리, 의미, 언어’의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것이 필자의 분석이다.

필자가 제한되었다는 점은 ‘확률과 귀납’의 문제에선 더 심하다. 이 문제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필자	제목	분류	년도
이초식	과학적 추리에 있어서 확률의 논리적 근거	학위(서울대석사)	1961
여훈근	확률에 관한 연구	학위(고려대석사)	1964
이초식	귀납추리의 정당화에 관한 고찰	일반(철학연구, 철학연구회)	1966
김준섭	확률성과 귀납법의 연구	일반(철학논구, 서울대)	1968
이초식	현대과학철학에 관한 연구	일반(서울교대논문집)	1971
이초식	현대결단논리의 기본사상	일반(철학연구, 철학연구회)	1973
이초식	귀납의 궁정론과 부정론	일반(철학, 한국철학회)	1975
이초식	귀납논리학의 학적 기반에 관한 연구-확률개념의 의미분석을 중심으로	일반(서울교대논문집)	1976
이초식	통계적 추정의 철학적 분석	일반(건국대논총)	1977
이초식	과학이론의 구조와 변동 일반		
권창은	귀납추리의 정당화문제	학위(고려대석사)	1974

이 문제에 관한 논문이 총 11편으로 적지는 않은 편인데 그 중 8편이 한 사람에 의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가 바로 일찍부터(50년대부터) 줄곧 논리학, 특히 확률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던 이초식 교수이다. 확률과 귀납의 문제는 김준섭 교수에 의하여 60,70년대에 서울대에서 부분적으로 강의도 되고 글로도 발표되었지만 이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60년대에 오스트리아에서 바로 그 문제로 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이초식 교수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70년대에 발표되었던 이 문제에 대한 논문들은 거의 모두 이초식 교수에 의하여 발표된 것들이다. 6, 70년대로 한정한다면 한국에서의 확률과 귀납의 문제는 이 한 사람만에 의하여 개척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

다.

<표 9>

필자	제목	분류	년도
변홍규	J. Dewey의 경험론에 관한 연구	학위(전북대석사)	1970
유기상	인식의 기저와 확실성에 관한 연구 -J.Dewey의 지식과 행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반(중앙대논문집)	1972
최정웅	J.Dewey의 경험사상과 고전경험론의 비교연구	일반(부산여대논문집)	1972
백종현	'우리의 삶에 외적인 것'의 실존해명 -G.E.Moore의 분석-	일반(철학논구, 서울대)	1974
정기영	J.Dewey의 경험개념에 관한 연구	학위(동아대석사)	1978
고창택	외계의 실재론적 인식에 관한 일 고찰: 갑각적 소여론을 중심으로	일반(동국사상)	1978
김위성	칸트와 포퍼의 경험이론	일반(부산대논문집)	1979
정대현	지식개념의 일상언어적 분석 -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학위(고려대박사)	1979
한전숙	W.James의 근본적 경험론과 현상학	일반(이석희박사학력기념논문집)	1979

심신문제에 관해서도 간략한 언급이 필요하겠다. 이 시기에는 비록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는 않았으나 80, 90년대에 와서는 미국 Brown대학의 김재권 교수의 학적 업적이 소개되면서부터 한국의 영미철학연구의 주 메뉴가 되듯이 하였기 때문이다. 심신의 문제는 비단 이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8, 90년대 영미철학계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된, 그리고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의 고속화 덕분에 바로 한국의 철학계에서도 중요한 철학적 논쟁거리로 되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하였듯이 6, 70년대에는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하였다. 1973년에 미국의 Case Western Reserve대학에 재직중인 김진태 교수가 한국철학회에서 “심리철학의 현황”이라는 제목의 발표가 한국의 철학자들로 하여금 심리철학에 눈을 뜨도록 한 계기가 아니었는가 한다. 그 후 1975년에 조승옥 교수의 「동일론에 입각한 심신문제」(『철학논구』, 서울대)가 발표되었고 1979년에는 철학연구회가 제 28회 연구발표회를 ‘심리철학의 문제’라는 주제로 가지게 되었

다. 이 발표회에서 소홍렬 교수의 「심신동일론-김재권 교수의 이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 발표를 시작으로 김재권 교수의 심리철학 이론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80년대에 들어와선 이에 대한 논의가 한국철학계의 주요 주제가 되듯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부분이 인식론과 논리학 분야의 주제들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은 많지 않다. <표 7>을 보면 ‘지식과 경험’이라는 주제와 ‘논리와 수리’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가 다른 것들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 적잖은 양과는 달리 질의 측면에서는 연구가 많이 되었다고는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선 인식론의 문제로서의 ‘지식과 경험’하면 현대 지식이론과 영국 경험론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 기간 동안에 발표된 논문들은 위의 표에서 보듯이 거의가 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경험의 기본기능으로서의 감각이나 지각에 대한 연구나 현대 지식론의 핵심적인 문제로 논의되는 정당화(justification) 문제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지식과 경험’이라는 주제로 분류된 연구결과의 양은 대부분 듀이의 경험에 관한 것들이고 여기에 칸트의 경험에 관한 것 한 편, 제임스의 경험에 관한 것 한 편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일반 학술지에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현대 인식론의 주제와 관련된 유일한 논문이 정대현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지식개념의 일상언어적 분석」이다. 이 논문이 제출되었던 해가 1979년이니 현대 인식론의 제반 문제에 대한 연구도 80년대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리와 수리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인식론에 대한 연구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이 역시 초보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논리철학적’이고 ‘수리철학적’인 것이어야 할 터인데 <표 10>에서 보듯이 이러한 수준의 논의는 별로 찾아볼 수 없고 교과서로서의 일반논리학, 또는 기호논리학에 관한 단행본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그래도 괄목할만한 업적이 있

었다고 한다면 1970년 『철학』지에 발표된 이초식 교수의 「B. Russell의 수리철학」이라는 논문과 1975년 『철학논구』에 발표된 이 훈 교수의 「함축의 역설에 관한 소고」라 하겠다. 논리철학이나 수리철학 분야에도 과학철학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전공한 학자가 극히 드물어 그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수행될 수는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표 10>

필자	제목	분류	년도
박종홍	일반논리학	저술	1962
김준섭	함축의 의미의 분석	일반(박종홍박사학회 기념 논문집)	1963
송현주	논리철학론	일반(전북대논문집)	1964
소광희	기호논리학	저술	1970
김정선			
이초식	B.Russell의 수리철학	일반(철학, 한국철학회)	1970
여훈근	수학 및 기호논리학에 의거한 삼단 논법의 분석	일반(고려대논문집)	1974
김용정	술어논리의 기초	일반(동국대논문집)	1975
이 훈	함축의 역설에 관한 소고	일반(철학논구, 서울대)	1975
서정선	Aristoteles의 논리학에 대한 Russell의 해석	일반(이화여대논문집)	1979

V. 결 론

지금까지 몇 가지 통계표를 근거로 하여 60년대 70년대 우리의 영미 철학 수용의 양상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물론 제시된 표들에 나타난 통계가 정확한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우리의 조사에서 빠진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분류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계의 정확성을 보이려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닐 것이기에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주의를 기울이지

는 않았다. 이 글의 목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그러한 통계가 가지는 함축을 읽어내는 일일 것이고, 이 일을 수행하는 데에는 설사 정확한 자료는 아니라 할지라도 위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각각의 통계표와 관련하여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부분적으로 이미 언급하였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이 통계표들 전체가 가지는 함축을 전반적인 관점에서 더듬어 보기로 하자. 필자가 보기에는 위에 제시된 통계표들에 근거하여 말한다면 6, 70년대 우리의 영미철학에 대한 연구의 특징을 대충 다음과 같이 말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 특징이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영미철학의 기본이나 기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빈약하다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에 영미철학은 무엇보다 경험과 논리에 대한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영미철학의 ‘경험이론’하면 역시 영국의 고전경험론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영국의 고전경험론이 영미철학의 한 초석을 마련하였다는데 대해서는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의 여러 통계자료에서 보았듯이 고전경험론에 대한 연구가 거의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은 6, 70년대 우리의 영미철학 연구경향이 얼마나 그 기초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하였는지를 잘 입증해 준다고 하겠다. 이 보다는 약간 나을지 모르겠으나 또 하나의 기초로서의 논리에 대한 연구도 대동소이하다. 20세기 영미철학의 확연한 한 기초가 ‘새로운 논리학’의 창안과 함께 마련되었다는 점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논리학이 바로 프레게와 러셀에 의하여 세워졌다는 점도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미철학 연구에는 프레게의 *Begriffschrift*나 *Grundlagen*, 그리고 렛셀의 *Principles of Mathematics*나 *Principia Mathematica*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20세기 영미철학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이 저술들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영미철학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실용주의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실용주의’라는 이름 아래 발표된 책이나 논문은 적지 않았지만 대개는 듀이의 대중적인 글들을,

그것도 주로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엮어진 것들 뿐이고, 실용주의의 철학적 기초라 할 수 있는 퍼스의 과학이론이라든지 그의 논리철학에 대한 연구논문은 거의 한 편도 눈에 띠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6,70년대 우리의 영미철학 연구는 제대로 시작도 못했거나 했다하더라도 정상궤도에는 진입조차 못하고 해매기만 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외래사상을 수용한다고 할 때 그 사상의 뿌리도 같이 받아 들여야 할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철학은 어떻게 보면 뿌리를 캐는 작업이고 근본에 대한 사유작업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철학에 대한 연구작업도 마찬가지이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서양철학을 수용해 온 우리의 연구태도에는 뿌리나 근본에 대한 반성이 대단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서양철학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연구자세의 이러한 경향은 비단 영미철학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영미철학보다 훨씬 더 심혈을 기울였던 독일철학 연구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이 엿보인다. 예컨대 칸트나 헤겔 같은 독일관념론자들에 대한 연구는 그 어느 것보다 많았으나 독일관념론 철학이 나오게 된 바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취약하다. 볼프나 라이프니츠철학에 대한 연구성과는 칸트나 헤겔의 그것에 너무나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이러한 연구태도는 그 후 80년, 90년대에 와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 퍼트남, 크립키, 데이빗슨, 로티 등의 철학에 관해서 전공을 하거나 아는 사람들은 많아도 프레게나 러셀, 카르납의 철학에 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이고, 칸트나 헤겔의 철학에 관하여 아는 사람은 많아도 라이프니츠나 스피노자의 철학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또 마르크스나 하버마스의 철학을 전공한 사람은 많으나 로크나 밀(J. S. Mill), 또는 꽁트나 루소의 철학을 전공한 사람은 별로 없다. 이와 같은 몰(沒)역사적 태도와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유행에만 따르려는 태도가 6, 70년대 영미철학을 수용할 때는 물론 그 이전 서양철학을 받아들일 때부터 있어왔고, 아직까지도 극복되지 않고 있는 우리 철학계의 한계요 단점이 아닌가 한다.

참고 문헌

단행본

- 박영식, 「인문과학으로서 철학의 수용 및 그 전개과정」, 『인문과학』 제26집, 1972.
- 조요한, 「한국에 있어서의 서양철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 『사색』 제3집.
- 조희영, 「한국의 현대사상에 미친 서양철학의 영향: 한국에 있어서의 서양철학 연구의 제 경향(1931-1968)」, 『철학연구』 제19집, 1974.
- _____, 「서양철학의 한국에 있어서의 수용과 한계분석」, 『철학·종교 사상의 제문제』 V,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89-9, 1989.
- _____, 「서구사조의 도입과 전개-철학사조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 대계』 제6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